中國語文學 第 45輯(2005. 6) 413-436 쪽

# 桐城派의 講學 傳統

백 광 준*

<目 次>

Ⅰ. 緖 論
Ⅱ. 桐城 學術과 講學
1. 文學 理論과 講學
2. 評點과 講學
3. 敎材와 講學
Ⅲ. 桐城 諸家와 講學
1. 講義 能力
2. 討論 文化
Ⅳ. 桐城派의 講學과 晩晴의 敎育
1. 敎育에 投身
2. 敎師의 重視
Ⅴ. 結 論

## Ⅰ. 緖 論

동성파의 戴名世는 13년간 舒城과 陳家洲 두 곳의 서당에서 강학을 담당하였고,[1] 戴鈞衡은 고향인 동성의 교육에 특히 큰 관심을 기울여, 1840년 지역 유지들과 함께 桐鄕書院을 창건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학교를 주관하고 강학을 담당하였다.[2] 요내 또한 1874년에 가을에 翰林院 纂修官 직위를 그만두고, 이듬해 남하를 한 뒤로 1815년까지 자그마치 40년간을 서원 강학에 몸 바쳤다.[3] 또한 후기동성파의 우두머리인 오여륜도 1888년, 그의 나이 49세 때 관직을 그만두고, 保定 蓮池書院의 山長을 맡았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楊懷志, 江小角 主編, ≪桐城派名家評傳≫(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1), 2 쪽.
2) 楊懷志, 江小角 主編, ≪桐城派名家評傳≫(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1), 193 쪽.
3) 더 자세한 내용은 周中明 著, ≪桐城派研究≫( 沈陽: 遼宁大學出版社, 1999), 201쪽 참고.

이홍장은 그 선택을 보고 “보아하니 그대가 요내를 본받고자 하는구려!” 라고 하였는데,[4] 동성문파의 인물들이 전통적으로 강학에 뜻을 두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같이 동성파 문인들이 대부분 강학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학술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성파 문인들에게 존재하는 강학의 전통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그들의 학술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 지, 또한 강학 활동에서 보여준 남다른 모습 등을 통해 다시금 동성 학술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Ⅱ. 桐城 學術과 講學

### 1. 文學 理論과 講學

#### (1) 義法說과 講學

그들은 강학을 통해서, 문학 수업에 힘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학 이론을 만들어내었다. 그들이 문학 이론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우선 동성파 문학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방포가 제기한 ‘義法說’을 꼽을 수 있다. 그는 <又書貨殖傳後>에서 “‘의’는 《주역》에서 이른 바 ‘言有物’이고, ‘법’은 《주역》에서 이른 바 ‘言有序’이다(義卽易之所爲言有物也. 法卽易之所爲言有序也)”[5]라고 하였다. ‘의’와 ‘법’의 함의인 ‘물’과 ‘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物’은 내용, ‘序’는 형식이라고 간단히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훨씬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와 ‘법’이 함

4) 楊懷志 等 主編, ≪清代文壇盟主桐城派≫(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2), 529쪽.
5) 方苞: <又書貨殖傳後>(≪方望溪全集≫(臺北: 世界書局, 1965)), 29쪽.

께 쓰이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법'의 의미에 가깝다는 점이다. '법'은 문장의 창작 원칙, 창작 규율과 글쓰기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법'의 함의 속에서 작품의 언어 풍격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를 보완한 것이 그가 다시 주장한 '雅潔論'이다. 이렇게 본다면, 방포는 '의'를 중심 요소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문장의 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학적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대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유대괴는 《論文偶記》에서 "문인은 훌륭한 장인이며, 의리, 서권, 경제는 장인의 재료이다(文人者 大匠也; 義理, 書卷, 經濟者, 匠人之材料也)"[6]고 말하고, 뛰어난 솜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솜씨는 '법'을, 재료는 '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7] 이렇듯 솜씨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발상은 방포의 논의와 연장선상에 있으니, 동성 문인들이 글쓰기의 이론화에 부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 요내는 의와 법을 위주로 전개된 그 전의 논의들을 '신리기미격률성색'으로 더욱 발전시켰다.[8] "의법 두 글자는 작문의 근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고인의 글쓰기 묘처는 진정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고향의 요내는 '신리기미격률성색'의 여덟 글자로 확대하였다(義法二字, 爲作文根本, 固矣. 然古人文章妙處, 實不止于此, 故吾家惜抱先生广之以神理氣味格律聲色八者.)는 요영박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9] 요내는 또한 이와 같은 문장의 개별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풍격에도 관심을 기울여, "천하의 도는 음유양강뿐이다. 문은 천하의 정수로, 음유양강이 현상된 것이다(天地之道, 陰陽剛柔而已 文者, 天地之精英, 而陰陽剛柔之發也)"[10]고 말하였다. 이것은 음유양강설로, 글

6) 劉大櫆 撰, ≪論文偶記≫(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98), 3 쪽
7) 趙建章: <論方苞的'義法'說>(≪常德師範學院學報·第26卷≫, 2001), 51-54 쪽
8) 姚鼐: <古文辭類纂序目>(≪清代文論選≫(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577쪽.
9) 姚永朴 編, ≪國文學·卷四≫(京師法政學堂, 1910), 3 쪽
10) 姚鼐: <復魯絜非書>(≪惜抱軒全集≫(江蘇: 中國書店, 1991)), 71 쪽

쓰기의 풍격을 이론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증국번은 <求闕齋日記類鈔·文藝>에서 陽剛의 미는 '雄, 直, 怪, 麗'로, 陰柔의 미는 '質, 談, 茹, 遠'의 여덟 글자로 표현한 바 있다.[11] 이는 요내의 음유양강설의 내용을 채운 것이며, 여기서 나아가 四象說을 제기하여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심화시켰는데, 이는 후기동성파에 이르러 더욱 발전한다.

> 증국번은 요내의 이론에 뿌리를 두어, 사상으로 나누고, 기세를 태양의 부류로, 취미를 소양의 부류로, 취미를 소양의 부류로, 식도를 태음의 부류로, 정운을 소음의 부류로 나누었다. 무창의 장유조 선생은 다시 스무 글자를 음양에 대응시켜, '神, 氣, 勢, 骨, 機, 理, 意, 識, 胍, 聲'은 陽이라 하고, '味, 韻, 格, 態, 情, 法, 詞, 度, 界, 色'은 陰이라고 하였으니, 그 분류를 채워서 모두 드러내었다(曾文正本姚先生之說, 析爲四象, 以氣勢爲太陽之類, 趣味爲少陽之類, 識度爲太陰之類, 情韻爲少陰之類. 武昌張廉卿先生又以二十字分配陰陽. 神, 氣, 勢, 骨, 機, 理, 意, 識, 胍, 聲, 陽也, 味, 韻, 格, 態, 情, 法, 詞, 度, 界, 色, 陰也, 則充其類而盡之矣).[12]

이상 동성 제가들의 문론을 살펴보면, 글쓰기의 구성 요소와 풍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진평원은 요내의 문장 이론에 대해 강학과 결부지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 바로 설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학생들이 입문할 길이 없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서 학문을 닦고자 하면, 반드시 개략적인 것에서 자세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서 점차 나아가야 한다. 교사로서 만약 의도적으로 심오하게 이끌어, 오로지 '형이상학'적인 고담준론만 떠든다면, 학생들은 필경 갈피를 못 잡을 것이다. …… 요내는 학생들에게 응당 손에 잡히면서 비교적 수준 낮은 '격, 률, 성, 색'으로부터 착수하도록 일깨웠는데, 나는 이런 책임을 지는 태도를 좋아 한다"[13]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동성 제

11) 曾國藩: <求闕齋日記類鈔·文藝>(≪中國文論選≫(江蘇: 江蘇文藝出版社, 1996)), 252쪽.
12) 姚永樸 編, ≪國文學·卷四≫(京師法政學堂, 1910), 6쪽.
13) 陳平原 著, ≪從文人之文到學者之文≫(北京: 三聯書店, 2004), 223-224쪽.

가가 중점을 두었던 것의 요점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논의라 할 수 있다. 하도는 증국번이 "도는 문에 의해 다하는 것이니, 고상하고 예스러움에 힘쓰지 않는다면, 도는 진실로 얻어져 전해질 수 없으니, 잠시 그 격식을 들어서 유능한 이를 불러 따르며 기다리게 하는 것도 좋다(**雖然道極于文, 不騖其高者古者, 道固不可得而傳. 姑縣其格以爲招能者從之俟焉可耳.**)" 14)고 의도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진평원이 말한 요내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그들은 글쓰기의 요체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대신, 체계적으로 요점을 끄집어내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는 오랜 세월 강학에 몸담았던 삶의 경험 속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청대 상황을 감안하면, 그들의 강학 내용 중에서, **八股文**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15) 대명세는 친구인 **汪份**과 함께 절에 묵으며 팔고문 백 여 편을 짓고, 그 비결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강남에 있을 때도 왕빈과 함께 **蘇州書房**의 **選政**을 맡아 팔고문을 평론하고 편집하여 당시 팔고문 글쓰기에 존재하는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16) 또한 오여륜은 "서원에서 시문을 중시할 뿐 아니라, 고문 또한 매우 중시하였다. 시문은 과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고문은 동성의 학문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17) 팔고문은 정해진 격식에 맞추어서 성인의 뜻을 표출해야 했던 만큼, 글쓰기의 격식을 밝혀서 이론화하고자 했던 동성파의 의도는 팔고문 글쓰기에 분명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팔고문에도 남다른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학 시 팔고문을 주된 내용으로 가르쳤던 사실을 감안할 때, 고문 글쓰기와 팔고문 글쓰기의 연관성은 계속해서 그들의 뇌리에서 교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양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글쓰기를 체계화하

14) **賀濤**: <**古文四象序**>(≪**賀先生(濤)文集**≫(**臺北: 文海出版社**, 1974)), 379쪽.
15) 서원과 팔고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拙稿**, <**桐城派의 成立과 志向**, 그리고 **八股文**>(≪**中國文學·第42輯**≫(**韓國中國語文學會**, 2004)), 112-113쪽을 참고.
16) **楊懷志 等 主編**, ≪**桐城派名家評傳**≫(**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1), 193쪽.
17) **魏際昌 等**: <**桐城古文學派與蓮池書院**>(≪**文物春秋**≫, 1996年 **第3期**), 27쪽

여 제시함으로써 고인의 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작문의 능력을 배가하는 것은 과거 시험 대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을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노력은 글쓰기의 세계를 축소시킨다는 비방을 면키 어렵다. 朱一新(1846~1894) 은 《無邪堂答問》에서 "동성의 글은 형식을 갖춘 것이 많고(桐城之文有序者多)", 내용을 갖춘 것은 많지 않다고 논한 바 있다.[18] 동성의 글이 대부분 '有序'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론화에 치중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불어 이론화로 인해 글쓰기가 형식화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뜻도 담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갖고 있는 팔고문과의 관련성이 야기한 폐단일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론화 작업을 순전히 형식 추구 경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론으로 그 전의 글쓰기 제 양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요내는 앞에서 본 것처럼, 글쓰기 요소로 '신리기미격률성색'을 밝혔지만, 더불어 "배우는 이들은 옛 사람에게서 우선 처음에는 그 개략적인 것을 대하고, 도중에는 그 세밀한 것을 대하며, 결국에는 그 세밀한 것을 운용하여 그 개략적인 것을 제거한다(凡文之體類十三, 而所以爲文者八, 曰: 神理氣味格律聲色. 神理氣味者, 文之精也, 格律聲色者, 文之粗也. 然苟舍其粗, 則精者亦胡以寓焉? 學者之於古人, 必始而遇其粗, 中而遇其精, 終則御其精者而遺其粗者.)"[19]고 체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교조적 수용에 대한 경계의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오여륜도 이론화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20] 이런 모습들은 공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한계 또한 분명히 말해줌으로써, 방법이 갖는 한계에 매몰되지 않는 안목을 갖게 해준다. 이 점에서 그들은 분명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교수법을 갖추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장병린에게 "동성의 의법은 어찌 그리도 협애한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이 때 장병린은 다음과 같이

18) 朱一新著 , ≪無邪堂答問≫(北京: 中華書局, 2000), 87 쪽
19) 姚鼐: <古文辭類纂序目>(≪清代文論選≫(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577쪽.
20) 吳汝綸: <記古文四象後>(≪吳汝綸全集 · 卷一≫(合肥: 黃山書社, 2002)), 301 쪽

말하였다.

> 이것은 현재에도 유용하오. 왜겠소? 명대에 난잡하고 경박한 글이 세상에 풍미하자, 방포가 일어나 일소하였소. …… 배우는 이들은 이를 지킨다면 천박한 부류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니, 취할 만 하다오! 살펴 말한다면, 글은 뜻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면서 천속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오. 내용과 법식을 갖추고 전아하며 예스러우면 이 또한 충분하오!(此在今日, 亦爲有用, 何者? 明季猥雜佻脫之文, 霧塞一世, 方氏起而廓清之. …… 學者守此, 不至墮入下流; 故可取也! 若諦言之: 文足達意, 遠於鄙倍; 可也; 有物有則, 雅馴近古, 是亦足矣!)[21]

체계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본질을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 장병린은 동성파의 의법이 바로 옛 것의 정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배우고 지킨다면 올바른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옛 글쓰기의 법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 뒤섞일 때, 옛 것을 계승하려고 한다면 그에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안목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옛 것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체계적인 이론이 가진 장점이기도 하다. 장병린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동성파의 이론이 가진 효율성을 깊이 통찰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동성 제가의 문학 이론이 강학과 결부되어 고려되었음을 또한 보여준다.

(2) 因聲求氣와 講學

'인성구기'설은 동성파 문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의이다. 이 이론은 유대괴가 《論文偶記》에서 신기, 음절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그 후 요내와 증국번이 차례로 그 중요성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동성파 이론 중 기존의 의법 이론과 더불어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하

21) 錢基博 著, ≪現代中國文學史≫(上海: 上海書店, 1989), 82-83 쪽

게 되었다. 대개 '인성구기'설은 넓은 의미에서 감상법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감상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런 관점도 무방하나, 구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동성파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영박은 동성 문인들이 성조와 관련한 논의를 이론화하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 만약 성조로 연마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고인의 글을 숙독하는 것에 달려있으니, 오래되면 자연 터득한 바가 있게 된다. 고향의 요내 선생은 "글을 배우는 사람은 고인의 글을 소리 내어 빠르게 읽고, 더불어 조용하고 편안하게 읊조려서 자연 깨달음이 있도록 해야지, 그저 눈으로만 본다면 평생 입문할 수 없소"라고 하였다. 고향의 방존지 선생도 일찍이 내게 "유대괴 선생은 고인의 글을 반드시 소리 내어 읽었소. 그 왕복과 곡절이 반드시 고인의 정신과 부합하기를 구하였지요."라고 하였다. 오여륜 선생도 "글을 배우려면 반드시 주의 깊게 낭송하는 것을 착수의 목표로 삼아야 하오"라고 하였다. 대체로 고문, 고시는 오, 칠언 근체시나 사와 달라서, 일정한 평측이 없다. 후자가 인위적인 것이라면, 전자는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고인의 글을 오래 읽고, 글을 쓸 때 다시 스스로 낭송하여 그 음절이 어떠한 지를 확인하면서 과감히 수정한다면 스스로 고문에 입문할 수 있으니, 사실 별달리 말할 만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若夫講求聲調用功之法, 則在熟讀古人之文, 久之自有所得. 吾家惜抱先生曰: '學文者于古人文, 必放聲疾讀, 又密咏恬吟, 自有妙悟, 若止默看, 則終身不得其門而入.' 吾鄉方存之先生嘗告永朴曰: 劉海峰先生于古人文, 必縱聲讀之. 其往復典折, 必求與古人之精神相應.' 吳摯甫先生亦言: 學文須以精誦爲下手第一義.' 盖古文古詩與五七言今体詩詩余不同, 非有一定之平仄. 彼出于人力, 此發于天然. 故必讀古人之文旣久, 而作文時復自諷誦之, 以試其音節如何而無吝于改削, 則自可以入于古. 實別無秘訣可言也.)[22]

의법론과 더불어 제가들에 의해 중요한 글쓰기 학습 과정으로 성조의 연마가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문장의 비결을 터득하는 데뿐만 아니라, 글

22) 姚永樸 編, ≪國文學 · 卷一≫(京師法政學堂, 1910), 14-15 쪽

을 수정할 때도 사용하여, 글짓기 수련의 측면에서도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은 '인성구기'의 방법을 감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 구체적으로는 글쓰기를 위한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므로 陳少松이 동성파가 독자의 신기와 작자의 신기를 합치시키는 것을 감상의 극치로 봄으로써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것은[23] 그들이 작자의 글쓰기를 익히는 것, 다시 말하면 글쓰기의 학습에 목적을 둔 학습 방법에 중점을 두고 성조를 중시하였음을 간과한 것에 다름 아니다. 동성파는 학습 과정에서 낭송을 활용하여, 옛 작자의 심태를 체득하고 이를 통해 그 글쓰기의 요체를 파악코자 하였던 것이다. 근대 저명한 교육가인 唐文治(1865~1954)는 개성 있는 낭송으로 유명한데, 錢仲聯에 따르면 오여륜에게 어떻게 낭송하는 지 그 가르침을 청하였다고 한다. 오여륜은 그에게 왕안석 문장의 낭송을 가르쳐주었고, 당문치는 그로부터 스스로 연마하여 개성 있는 낭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24]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문치가 오여륜에게서 낭송을 배웠다는 점인데, 이는 바로 동성파가 교학 과정에서 낭송을 중시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인성구기'가 강학과 결부되어 중요한 점은 바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스스로 읊조림을 통해서 고인의 글쓰기를 배우는 것은 분명 '無秘訣可言'하지만, 효과적인 학습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 2. 評點과 講學

평점은 기존 글쓰기에 대해 평가한 짧은 말을 문장 옆에 두거나, 어휘 사용이 훌륭한 부분에 동그라미나 점을 찍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성

23) 陳少松 : <因聲求氣>說與古詩文吟誦>(≪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1994年), 29쪽
24) 陳少松 : <因聲求氣>說與古詩文吟誦>(≪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1994年), 30쪽

제가는 이 평점의 치학 방법을 선호하였다. 예컨대 방포는 《史記》, 《韓文》, 《柳文》등 10권이 넘는 책에 評點을 남겼고, 요내에 가서는 더욱 늘어 20권에 가까운 평점서를 남겼으며, 오여륜의 경우는 무려 100권이 넘는 평점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25] 그렇다면 그들은 평점을 통해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 유성목은 오여륜의 평점에 대해 논하면서, "고인의 전하지 않은 정수를 모두 취하여 환히 드러내었으니, 배우는 이들의 학습을 수월케 하고, 또한 글쓰기의 표준을 깨치게 하였다(盡取古人不傳之蘊, 昭然揭示, 俾學者易于研究, 且以識夫作文之軌範, 雖萬變不窮, 而千載如出一轍.)[26]고 언급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평점을 통해 추구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바로 교육적 견지에서 평점도 도입되고, 또한 적극 활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역시 적지 않았다. 누군가가 방동수의 《昭昧詹言》에 대해 "예로부터 작자는 그저 그 글로 전할 따름이지, 그 문을 익히는 방법을 들어 이론으로 엮어내는 경우는 없었으니, 이와 같은 것은 비루함에 가까울 테죠?(自昔作者第以其文傳而已, 未有擧其所以治文之方而著之爲言者, 若此, 則几于陋與?)"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방동수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지금에 이르러 전주를 없애지 않고, 이처럼 하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다고 여긴다. 그 어슴푸레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채 있으니, 내가 깨달은 것으로 깨우치는 것이 낫다(至于今而傳注不廢, 以爲不如是不足以有明也, 爲其冥冥群卽于昧也, 孰若以吾所覺覺之也)"[27]고 하였다. 이론화의 병폐에 대한 지적에 맞서, 자신이 깨달은 것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론화는 불가피함을 인식한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적 가치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오여륜도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남들에게 형편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허튼소

25) 劉聲木 撰, ≪桐城文派淵源撰述考≫(合肥: 黃山書社, 1989), 395, 431, 505 쪽 참고.
26) 劉聲木 撰, ≪桐城文派淵源撰述考≫(合肥: 黃山書社, 1989), 286쪽.
27)方東樹: <合刻歸震川圈識史記例意劉海峰論文偶記跋>

리로 속이는 것일 따름이다. 형편이 있고 없고는 학문의 깊이에 달려있는 것이다(或乃謂示人以陋, 此大言欺人耳. 陋不陋, 在學問深淺)."[28]라고 말하였다. 학문의 방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학문의 깊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당시 비방하는 무리들이 전통적인 학문 방법에 젖어서 스스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과 그로부터 비롯한 무시 등에 대해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시 사고해주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여륜의 생각대로, 진정 그 방법이 학문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의 속에도 역시 교육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개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본질적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느 것도 무방하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그들은 평점이 가진 교육적 효과를 인식하고, 학습을 위해 고서에 평점을 가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원에서 강학을 할 때에,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평점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남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일찍이 蓮池書院의 諸生들이 적색, 남색 등 다양한 색으로 요내, 장유조, 오여륜 등의 ≪고문사류찬≫ 및 ≪사기≫ 등의 권점에 임하는 것을 보고, 권점이 어찌 학문이냐며 함부로 비난하였다. 퍽이나 불순하였다. 돌이켜보건대 당시 기회를 놓쳐 도움을 구하려들지 않았으니, 후회해도 늦은 것이다. …… 나중에 장태염 선생에게 그것을 언급하였더니, 선생도 동성 법문으로 초학들이 작문하는 첩경이니, 무조건 비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 대체로 서원에 들어간 뒤에 필히 일기를 쓰고, ≪고문사류찬≫에 권점을 하였는데, 오선생이 권점한 것을 보면서, 본 따 하였다. 어떤 것은 요내, 장유조 등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양한 색으로 덧붙이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사기≫를 권점하였는데, 두 책은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각자 기호에 따랐으며, 특히 고문을 중시하였다(嘗見蓮池諸子, 以朱藍各色, 臨姚張吳諸氏之古文辭類纂及史記等圈點, 妄斥謂豈圈點卽學問耶? 頗不馴. 回憶當時錯過機會, 未肯受益, 悔之晩矣. 後與太炎先生言之, 先生亦謂桐城法門, 乃初學作文者捷徑, 不可厚非也. …… 凡入院後, 必須寫日記, 圈

28) 吳汝綸: <答方存之>(≪吳汝綸全集 ·卷三 ≫(合肥 : 黃山書社 , 2002)), 20쪽.

點古文辭類纂. 瞧吳先生所圈點者, 依樣爲之; 或將姚張諸家同時以各種色臨再進則圈點史記. 二書乃必修之業. 其他則隨各自所好, 特注重古文) [29]

이처럼 그들은 강학을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평점을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직접 평점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접적인 깨달음을 구하도록 한 것이다. 주입하는 교육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익히고 그것을 깨우치는 방식으로 강학을 펼친 사실로부터, 그들이 강학에 관한 남다른 능력을 가졌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에서 장병린이 동성파의 의법 논의와 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그들의 학문 방법을 긍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견지에서 평점이 가진 교육적 기능을 긍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曾克耑은 후기동성파의 강학에 대해 "평점은 해설보다 낫고, 탐색은 고증보다 나으니,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쉬이 이해하게 하며, 환히 얼음이 녹 듯하였다(評點愈于解說, 探索愈于考證, 使讀者怡然理順, 煥然氷釋)"[30]고 정리하였다. 여기서 평점은 해설보다 낫고, 탐색은 고증보다 낫다고 한 것은 자세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평점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탐색을 통해 스스로 숨은 뜻을 찾는 학문 방법의 의의를 강조한 것으로, 동성파의 강학 방법이 가진 장점, 곧 배움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되, 스스로 깨우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은 학문 방법을 지적한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평점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 좋은 보기이다.

### 3. 教材와 講學

동성파 학자들은 강학에 필요한 교재의 편찬에도 열성을 기울였다. 일정한 교육 방침을 갖고 있는 교사는 기존 교재와는 다른 교재를 자연 필

29) <張繼回憶錄>(≪姚曾論文精要類徵≫(臺北: 商務印書館, 1988)), 139 쪽.
30) 曾克耑, <桐城吳氏國學秘笈序>(吳闓生、李剛己 選評, ≪桐城吳氏古文法≫(北京: 中華書局, 1970), 1쪽.

요로 하게 되니,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그들이 각종 교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오개생은 기존에 오여륜이 편찬한 선집이 있으나, 어려워서 배우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자, 새로운 문법교과서를 준비하면서 "상세히 모두 밝히는 것을 꺼리지 않아, 글을 깨우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不惜詳且盡, 慰蒙求也.)"[31]고 하였다. 앞에서 평점에 대한 세인들의 비판을 잠시 소개한 바 있는데, 그것의 주된 이유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道可道, 非常道'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개생은 배우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의 혐의와 비판을 무릅쓰고 자세히 자신의 관점을 개진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桐城吳氏古文法》을 엮고, 이 책의 활용에 대한 자신의 관점도 밝혔다.

> 내 책은 훌륭한 교사가 설명하고 지도하고, 널리 비유하고 자세히 깨우친다면, 7, 8세의 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 어려움을 걱정하여 배우지 않는다면, 고등학당에 입학할 때가 되어도, 아마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한 마디 꼭 밝혀야 할 것은, 이 책은 본시 교사용이지 아동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가 평어를 음미하여 마음으로 깨달아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한다면, 아마도 이 책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이다(吾書若得良教師口講指畫, 廣譬而曲喩之, 七八歲稚子所能通. 若畏其難而不學, 雖至入高等學堂時, 恐其依然不解也. 獨有一語須申明者, 此本乃教師用而非兒童用者, 教師玩味批語, 心領神會, 以之教授兒童, 殆無善於此者.[32]

우선 그는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교재의 편찬 당시 이미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용 책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책의 수준을 대상과 교육적 효과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판 의도와 편집 방식은 현재의 교재와 손색이

31) 吳闓生, <桐城吳氏古文法序>(吳闓生、李剛己 選評, ≪桐城吳氏古文法≫(北京 中華書局, 1970), 1쪽.
32) 吳闓生, <齲言>(吳闓生、李剛己 選評, ≪桐城吳氏古文法≫(北京: 中華書局, 1970), 1쪽.

없으니, 이와 같은 완정한 형태의 교재의 모습은 동성파 내에서 줄곧 축적된 교재 편찬의 노하우가 그 바탕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동성파 내에서 준비된 교재 가운데 선례이자 또한 대표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은 바로 요내의 《고문사류찬》이다. 진평원은 이 선집에 대해서 "문체를 13유형으로 나누어, 700여 편의 문장을 수록하였는데, 그 수집의 광범위함, 선택의 정확함, 분류의 훌륭함은 그저 동성고문가들이 모범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일반 문인학자들도 "초학자에게 모범을 제시하는(爲初學示範)" 그것의 역할을 인정한다. 전기박(錢基博)은 이 책을 추켜세우면서, 그 분류가 본원을 추구하고, 글의 선택은 전아함에 힘썼다는 점을 칭송한 것 외에, "이런 글을 선본에 수록하여, 후인들에게 길을 제시했다(薈斯文于簡編, 詔來者以途徑)"는 점을 더욱 좋게 보았다."[33]고 소개하였다. 《고문사류찬》 편찬 당시 요내가 교육적 효과에 매우 주의하였음을 잘 설명해준다. 이 책은 당시뿐만 아니라, 고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좋은 교재로 호평 받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방대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니, 그들이 교재를 엮을 때, 이것이 가져올 교육 효과에 대해 얼마나 착실하게 고민하고 준비했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 Ⅲ. 桐城 諸家와 講學

### 1. 講義 能力

동성파의 교수법은 앞의 학술 방법에서 보듯 다양한 방법들을 강학 공간에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강의를 할 수 있었다. 이는 그 강의 철학과 강의에 필요한 여러 보조 수단을 치밀하게 마련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33) 陳平原 著, 《從文人之文到學者之文》(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2004), 223쪽.

더불어 동성파 개개인이 가진 강의 기술 또한 탁월하였던 것도 한 이유이다. <古文法提要>를 보면, "오여륜 선생께서는 그 자제와 문인을 가르칠 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나아가며, 고문의 비결을 자세히 논하지 않음이 없었다(獨摯父先生敎其子弟門人, 自淺及深, 自近及遠, 凡古文之訣竅, 無不詳說之.)"[34]고 하였다. 그들 스스로가 글쓰기에 대해 문학이론에서 보듯 깊고 정교한 이해가 있었기에, 자연 그 강학 또한 '명 강의'였던 것이다. 하도는 더욱 솜씨 있는 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특히 說書에 뛰어났고, 형용을 잘 하였으며, 바른 소리로 깨우치지 못하면 방탕하게 말하였고, 간간히 비유를 섞어 옛사람의 말소리와 웃는 모습이 종이위에 도드라지게 하여 배우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백대 이후로부터 말미암았으나, 백대 이전과 동일하게 하여, 직접 옛사람과 한 방에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듯하였다(尤妙于說書, 善爲形容 正言不喻、而偏宕言之, 間以譬況, 俾古人之聲音笑貌凌厲紙上, 汲引學者心目. 由百世之下, 等百世之上, 若親與古人晤對唯諾一室之中).[35]

趙衡이 묘사한 하도의 강의 모습을 보면,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원숙한 배우를 연상케 한다. 격의 없이 학생들 앞에 선 모습에서 훌륭한 스승의 자질을 느끼게 한다. 오맹복은 이와 관련하여, 동성파의 작가가 대부분 이런 본령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동성파 작가가 원래 글을 가르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 사제가 서로 이어서 경험을 쌓은 때문이다"고 하였다. 동성파 작가들이 가진 강의 능력은 교육 효과를 중시하였던 강학의 전통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4) <古文法提要>(吳闓生、李剛己 選評, ≪桐城吳氏古文法≫(北京: 中華書局, 1970), 1쪽.

35) 趙衡: <賀先生行狀>(≪賀先生(壽)文集≫(臺北: 文海出版社, 1974), 449쪽.

2. 討論 文化

吳孟復은 그들의 탁월한 교수 기술에 대해, “사제가 서로 이어서 경험을 쌓은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평소 학술 활동 시 중시하였던 토론 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유조와 오여륜은 증국번 막부에 있을 때, 동료인 여서창 등과 함께 문장을 연마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훗날 장유조가 연지서원을 주관하는 동안, 南宮縣의 요청을 받고 <重修南宮縣學記>를 썼을 때도, 초고가 완성되자 당시 기주지주였던 오여륜에게 감수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들이 편집 과정에서 토론했던 흔적은 民國때 출간된《張廉卿與吾摯甫》 墨迹本에서 볼 수 있다.[36] 특히 “兩先生(오여륜과 장유조)門下賢雋士相流通”할 정도였으니, 두 사람이 학문에 정진할 때, 또한 제자를 양성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과 후학들의 발전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면 쉽게 행해질 수 없는 모습이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이들은 모두 증국번의 막부를 거쳤는데, 이들 또는 그 제자들 간에 서로 함께 학문을 닦는 모습은 증국번의 평소 모습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여륜은 증국번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대체로 증국번은 매번 일을 할 때, 선입견이 없었고, 편견도 없었으며, 다만 자세히 사유를 알리고, 여러 사인들에게 각기 원고를 제출케 하여 그 중 가장 나은 것을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아무개의 글이 훌륭하오”라고 널리 알렸다. 만약 모두 적합하지 않으면, 비로소 자신의 글을 내놨으며, 만약 자신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내 애초의 뜻은 이러했소. 지금 아무개의 글이 나보다 나으니, 내가 그것을 쓰겠소.”라고 말하고, 곧 자신의 원고를 폐기하였다(蓋曾公每辦一事, 無適莫心; 無人己見, 但詳告事由, 命諸同人各擬一稿以進, 擇其最善者用之, 且遍告曰: 某君文佳, 倘皆不合, 始出己文. 如有勝己者, 則曰: 吾初意云云, 今某君文勝吾, 吾用之矣. 即將己

36) 魏際昌, 吳占良: <桐城古文學派與蓮池書院>(≪文物春秋≫, 1996年 第3期), 25~26쪽.

稿棄去).[37]

이 글에 이어서 오여륜은 이홍장이 증국번과 비교할 때, 토론보다는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였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평소 다른 학자들과 교류할 때, 보인 모습의 차이점을 소개하였다. 오여륜이 회상을 하며 증국번의 태도에 대해 감탄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증국번의 모습은 오여륜을 비롯한 여러 문하 선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후기동성파의 학문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여륜이 서원에서 강학을 할 때의 모습은 증국번 막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 매번 교사의 회합에 이 수 십 명은 모두 참석하여 학문과 일을 논하였는데, 귀천의 차별도 없었고, 주객의 내색도 없었으며, 피아의 견해도 없애서 모두들 즐거워하며, 누가 벼슬아치인지, 누가 선비인지, 누가 빈사인지는 상관치 않았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한 식구처럼 끈끈하였다(每校士之期, 此數十人者畢來論學議事, 略尊卑之分, 泯主客之迹, 黜彼我之見, 翕然歡然 不知其孰爲官、孰爲士、孰爲賓師也. 而生徒執業, 其中者亦相與維擊如一家).[38]

교육적 효용을 중시했던 그들의 모습은 학문의 공간에서 함께 정진할 때에도 신분과 처지를 따지지 않았으며, 지식 앞에서 서로 평등할 수 있었다. 그들의 문학 이론 등에 녹아있는 체계적 사고들은 스승 사이에도 또 학생들 사이에도 학문을 위해 격의 없이 교류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망이 있고 학식이 있다면, 다투어 초빙하려했던 오여륜은 진정 학문의 흥성을 위해 힘썼던 동성파의

37) 唐文治: <桐城吾摯甫先生文評手迹跋>(尙小明 著, ≪學人游幕與淸代學術≫(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159-160쪽 재인용.
38) 賀壽: ≪尙君采章六十五壽序≫(≪賀先生(壽)文集≫(臺北: 文海出版社, 1974)), 329쪽.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Ⅳ. 桐城派의 講學과 晩晴의 敎育

### 1. 敎育에 投身

전통적으로 동성파의 학술 그리고 학문 풍토가 강학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들의 강학 전통이 근대 시기를 맞닥뜨린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오여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원이 철폐되자, 설 자리를 잃은 오여륜은 1898. 5. 29일에 두 차례 연이어 쓴 글에서 당혹스러움을 표출하였다.[39] 서원이 없어지자, 그가 느끼는 절망감은 강학이 자신들의 학술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지향하였던 그들에게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진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상실감에 젖었던 오여륜은 2년 뒤에 大學堂 總敎習의 직위에 추천되었다. 하지만 그는 좀 전에 낙담했던 것과 달리, 영예로운 직위를 굳이 고사하고자 하였다. 그는 1902년 1월 9일 「與曾履初兄弟」에서 대학당에 취임할 수 없는 이유로, 10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으나,[40]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1902년 1월 11일에 쓴 <諭兒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그를 추천한 장백희의 뜻이 그의 지향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실행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 삶의 지표는 바로 당시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통해 국운을 개척코자 하는 데 두어졌으며, 그를 위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고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장상서는 이미 조정에 상신하여 오여륜으로 하여금 고사할 수 없도록 옭아매었고, 이에 우선 일본에 다녀오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일본에 다녀온 뒤, "자신의 평소 뜻을 펼쳐, 채택되지

39) <答柯鳳蓀>, <答鄭蘅如> 참조.
40) 吳汝綸: <與曾履初兄弟>(≪吳汝綸全集 卷三≫(合肥 : 黃山書社 , 2002)), 386쪽.

않으면 의연히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남방의 교육에 종사(伸己之素志, 不用則毅然勇退, 以歸鄉里, 從事南方之教育)"하려고 맘먹었다.[41] 자신의 교육적 이념을 의연히 지키고자 한 모습에서 동성의 전통이 오롯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평생 교육에 전념하고, 또 교육적 효과,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였던 오여륜의 모습은 동성파의 강학 전통이 발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서원이 철폐되어 짧은 시간의 심리적 공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입장을 보여준 그의 모습은 분명 평소 전통적 교육 공간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몰두하였던 전통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청말 격변기에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학계에 흡수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오여륜 외에 嚴復, 姚永樸, 姚永概, 馬其昶 등 동성파 후학들이 20세기 초 京師大學堂 교수직을 맡게 되는 상황도 이런 강학 전통에서 성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전통의 가치가 붕괴해가는 속에서도 그들은 교육이라는 가치에서 축적된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근대 공간으로 흡수되었던 것이다.

### 2. 教師의 重視

인재 양성을 외침과 더불어, 그들은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의 역할에 대해 매우 중시하였다. 이런 태도와 인식은 학당에서 서학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가 선교사의 활용을 강조하였던 대목에서 드러난다. 1896년 8, 28일에 오여륜은 조정의 학당을 통해 서학을 확산시키는 정책과 관련하여, 그 교사의 수급을 위해 선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42] 그리고 다시 1897. 2. 7일에 《答洪翰香》에서 서학에 능통한 이들이 "내지의 주현에 찾아갈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저 나라의 선교사를 쓰지 않으면, 교사를 얻을 길이 없다(其內地州縣, 無由訪覓, 然則舍彼國教士無從得師.)[43]고, 현실적으로 선교사의 활용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41) 早川新次: <在安慶寄邦人書>(≪吳汝綸全集 · 卷四≫(黃山書社, 2002)), 1167쪽.
42) 吳汝綸: ≪答孫慕韓≫(≪吳汝綸全集 · 卷三≫(黃山書社, 2002)), 127쪽.
43) 吳汝綸: ≪答洪翰香≫(≪吳汝綸全集 · 卷三≫(黃山書社, 2002)), 143쪽.

강조하였다. 당시 상황을 직시하여, 명분에 얽메이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훌륭한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더욱 부각되는 대목은 강유위, 양계초 등의 개혁 시책과 맞물리는 대목에서이다. 《答賀心銘》을 보면, 그들의 시책이 말만 앞세울 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 문인인 그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을 주장함으로써, 개혁 세력보다 침착하게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與南鄉紳士李與仙柏松如》에서는 "가난한 집의 일처리 방법(窮家辦法)"이라고 하여, "서양의 교사는 청하기 어렵고, 동양의 교사는 청하기 쉬운데, 그 효과는 매일반이다(西師難請, 東師易聘, 其功效行正復相同.)"[44] 임을 강조, 일본인 교사의 활용을 권하고 있다. 서양 교사를 주장한 데서 다시금 사정을 살펴 시책을 수정한 것으로, 고정된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걸맞게 변통하는 모습은 강학 전통과 토론 문화에서의 개방적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여륜은 나아가 국내의 인재들을 우선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與陸伯奎學使》에서 그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뛰어난 선비들을 모아 그들에게 우선 외국 교사들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 각 지역으로 내려 보내 부족한 교원을 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45]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선생님의 확보를 중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비추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유위, 양계초 등이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적인 조치의 결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 이들이 보여준 침착한 대처는 동성파 내부에서 장기간 이어져 내려온 강학의 전통 때문이라 여겨지며, 이것이 그들에게 변화된 상황에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마련한 덕분일 것이다.

44) 吳汝綸: 《與南鄉紳士李與仙柏松如》(《吳汝綸全集 ·卷三》(黃山書社, 2002)), 196쪽.
45) 吳汝綸: 《與陸伯奎學使》(《吳汝綸全集 ·卷三》(黃山書社, 2002)), 375쪽.

## Ⅴ. 結 論

중국의 옛사람들은 지금껏 문언을 사용해왔지만, 여태껏 문언 글쓰기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전해 내려오는 글쓰기 규율에 맞는 문장을 써낼 것인가는 그저 스스로 장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독서를 통해 체득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은 고인의 "**道可道, 非常道**"의 관점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감성적 체험을 중시하는 것은 중국 고대 글쓰기 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유방식의 일종이다.[46] 체험을 중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묘처를 터득할 수 있게 하므로, 확실히 정밀한 심미 또는 감상 방식의 관념에 손색이 없다. 하지만 그 문제점 또한 적지 않으니, 이와 같은 사유는 벌써 두 가지의 전제를 함축하는 것이다. 우선 대상은 응당 독서인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학문의 측면에 장시간의 공력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감상이나 깨달음을 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는 점이다. 이는 그저 글쓰기의 향유 계층을 독서층으로 제한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요령을 감지할 수 없어 끝내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이 독서 과정에서 얻은 수확을 남기지 않고, 초학자들에게 부득이 선배들이 지나갔던 길을 다시금 걸어 익히도록 한다. 동성파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 가져온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감히 그에 맞서서 체계화, 이론화에 앞장섰다. 그에게 쏟아진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강학의 공간에서 보여준 교수 기술과 경험 등은 전통 공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없이 고귀한 것이며, 또한 그런 만큼 근대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매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그들이 제기한 일련의 문학이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이 과감히 글쓰기 이론을 개괄하는 데 착수하여, 근본적으로 전통 관념을 돌파하고 있다

46) 王凱符、張會恩 主編, ≪中國古代寫作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1쪽.

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오여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강학의 전통은 후기동성파로 고스란히 계승되었고, 이는 후기동성파가 근대의 공간 속에서도 의연히 교육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선구적인 역할을 떠맡을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하였다. 요컨대 서당의 폐지로 갈 곳을 잃고 낙담하였던 그들이 새로운 상황 하에서도 준비된 교사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성 문인들이 대부분 몸담았던 강학과 그 속에서 얻어진 값진 경험들, 그리고 그 능력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수의 내용으로 전통 공간에서 팔고문을 전수할 때도, 또 근대 공간에서 서학을 전수할 때도 여전히 방법론의 측면에서 유효한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들의 강학 전통과 강학 활동, 또한 그 속에 빛나는 강학 이념 등이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그들 사유 속에 담긴 강학에 관한 관념의 건강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점은 분명 우리에게 동성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參考文獻>

方苞 撰, 楊家駱 編, 《方望溪全集》, 臺北 世界書局 1965.
劉大櫆 撰, 《論文偶記》,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98.
姚鼐 著, 《惜抱軒全集》(全一冊), 江蘇: 中國書店, 1991.
吳汝綸 著, 《吳汝綸全集》, 合肥: 黃山書社, 2002.
姚永樸 編, 《國文學》, 京師法政學堂, 淸 宣統2年 (1910)鉛印本.
賀濤 著, 《賀先生(濤)文集》, 臺北 文海出版社, 1974.
朱任生 編著, 《姚曾論文精要類徵》, 臺北: 商務印書館, 1988.
劉聲木 撰, 《桐城文派淵源撰述考》, 合肥: 黃山書社, 1989.
陳平原 著, 《從文人之文到學者之文》, 北京: 三聯書店, 2004.
尙小明 著, 《學人游幕與淸代學術》,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楊懷志, 江小角 主編, 《桐城派名家評傳》,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1.
南京師大學報編輯部,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1994.
《文物春秋》編輯部, 《文物春秋》, 第3期, 1996.
常德師範學院學報編輯部, 《常德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6卷 第6期, 2001.
吳孟復 著, 沈慶昊, 金鳳姬 譯, 《桐城文派述論》, 서울: 태학사, 1998.
拙稿, 《晚淸傳統文人與文言》, 南京大學博士論文, 2004.

## <中文提要>

桐城派的諸多人士有自己的生涯中把大部分時間和心血投入講學方面。因此, 他們的文學理論和學術態度都反映着講學活動中所累積的成果和經驗。首先, 考慮一下其講學和文學理論的關系。義法論可謂是代表他們的文學理論, 自從該派的祖師爺方苞提出了以后, 經過姚鼐、曾國藩等的修正持續發展。我們要注意的是, 方苞雖然提出'義'和'法', 而具體運用時, 主要偏重于'法', 卽是作文方面。這樣的看法也見于劉大櫆的思路, 這顯示出他們致力于將作文的秘訣亮出, 進而試圖理論化。不過, 這自然引起了人們的强烈批評, 是因爲傳統讀書人歷來習慣了'道可道, 非常道'的觀念, 無法理解桐城派的思路。但桐城派對此表明寧可說出自己所得意的, 幫助人家了解, 不愿置'蒙昧的人'而不顧。從中容易看出, 教師的基本素養, 這可一定程度上從長期的講學經歷培養出來的。"因聲求气"的治學方法也是爲了學文而提倡的, 要學生通過自己朗誦古文, 體悟其中的作文秘訣。他們不僅努力梳理出作文理論, 而且給學生提示以其實踐方法, 也呈現出他們講學上非常扎實的基本功。這不止于此, 他們在從事學術時非常講究評点。評点的治學方法也跟義法論似的面臨'道不可道'的批評, 而他們駁之以教育效果, 卽這樣的方法爲初學确有好處。同時, 講學活動自然引起他們注重教材, 姚鼐的《古文辭類纂》就是代表桐城派的一部教材, 這至今仍在受到人們的歡迎, 使我們知道他們在準備教材時所下的功夫。

至于講學活動，桐城派運用如上的本事在實際講學上發揮了作爲教師的卓越能力，尤其是賀濤甚至不嫌滑稽、說書等方式從事講學。與此同時，他們平時不疏忽互相琢磨，其活躍的討論文化表現不斷砧研自己學問的老師資質。

卽使處于巨變時期，如上講學本領使他們發揮重要作用，例如吳汝綸目睹書院改成學堂就不知所措了，而不久被張尙書任以大學堂總教習，從容地按照自己的意見去構想教育方針，主要凝聚于人才培養，同時每常從實用的角度樹立政策。除此之外，還甚爲重視教師的作用，他提倡吸收西學時，特爲注意良師如何養成和拔擢，進而及時充足學堂的需要。我們應該說這些看法不只是他一个人的看法，他們雖然是傳統文人，然而其講學經驗以及思路却也足以在新時代發揮重大貢獻，是難能可貴的。

주제어 : 桐城派, 講學, 文學理論, 評點, 教材, 討論, 晩淸

KCI